

지안에듀 안효선

現 지안에듀 국어 전임
 現 지안에듀 상용한자 강사
 現 빅모의고사 해설 위원



【총 평】

이번 계리직 시험은 예전 기출 문제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한자어가 문맥에 적절하게 쓰였는지 또한 한자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한자성어가 문맥상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과태료’와 ‘고식지계’ 등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한자성어가 많이 출제되어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제될 계리직 문제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계리직 시험이 시행되니 올해 합격하지 못하셨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답 분석을 철저히 해 꼭 합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B형 문항 해설】

문 19.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구청에서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했다.
- ② 본회의에 주요 안건을 부의(賄儀)했다.
- ③ 두 팀은 백중세(百中勢)의 경기를 했다.
- ④ 그는 자신의 의견에 추호(秋護)도 양보하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과태료(過怠料)’이다. ‘과태료’는 ‘過(지나) 지날 과, 怠(게으르) 태, 料(해아릴) 료’를 쓰며, “의무 이행을 태만하게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한다.

★ 적중 (필수한자 451, 1583번)



오답:

② ‘부의(賄儀)’ → ‘부의(附議)’

‘부의(賄儀)’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본 회의 주요 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토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의(附議)’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적중 (필수한자 1177번)



③ 백중세(百中勢) → 백중세(伯仲勢)

‘백중세(伯仲之)’는 ‘백중지세(伯仲之勢)’의 줄임말로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말한다. ★ 적중 (필수한자 616번, 관용구)



④ 추호(秋護) → 추호(秋毫)

‘추호(秋護)’의 올바른 한자는 ‘가을 추 秋, 티 렉 호 毫’이다.

추호(秋毫)

- 1. 가을철 털같이하여 새로 돌아난 짐승의 가는 털
- 2.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20. <보기>에 제시한 글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성어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인근 마을에서까지 모여들어 성시를 이루었던 하회별신굿은, 이 곳을 못 보면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간다고까지 일러 오던 대축제였다.
- ㄴ. 물질과 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문화를 잃게 되며, 삶의 주체인 인격의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그 뒤를 따르는 불행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 ㄷ.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 ㄹ. 문제를 어리석게 해결한다 함은, 오즘을 누어 언 발을 녹이는 경우와 같이, 당장의 문제는 일단 벗어났으나 다음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처신했을 경우를 말한다.

- ① ㄱ: 人山人海 ② ㄴ: 明若觀火
 ③ ㄷ: 自激之心 ④ ㄹ: 姑息之計

정답: ③

해설: ③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 적중 (필수한자 70, 한자성어 196쪽) 
 여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는 뜻을 가진 ‘부지불식(不知不識)’이 자연스럽다. 이 문제는 ‘스스로’의 의미를 가진 ‘스스로 자 自’를 이용하여 출제된 문제이다.

오답:

① 인산인해(人山人海)는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인 상태를 이르는 말.”로 적절하다. 문전성시(門前成市)와 같은 뜻이다.

② 명약관화(明若觀火)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이라는 뜻이다. <보기>의 글에서 물질과 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면 그 뒤는 불행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명약관화’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적중(필수한자 167, 983,  1752번)

④ 고식지계(姑息之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이라는 뜻으로, 오즘을 누어 잠깐 언 발을 녹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추위는 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기>에 적절한 한자성어이다. 특히 ‘姑’는 ‘시어머니 고’이지만 ‘잠깐’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수업 시간에 강조하여 설명한 한자성어였다.

★ 적중 (예상문제 8번, 필수한자130번, 한자성어183쪽) 